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1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운송 전기화 이니셔티브에 **2,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및 보조금 발표

***800**만 달러를 투자해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등 소외 지역사회에 고속 충전기 설치 가능*

*업스테이트 뉴욕 접근성 개선을 위해 **ChargePoint** 및 **EVGateway**에 대한 보조금 **700**만 달러 지원 발표*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 스쿨버스 및 준대중교통 버스 전환 지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겠다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의 목표 달성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운송 전기화 이니셔티브에 2,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에는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프로그램의 3차 라운드에 따라 소외된 지역사회 등 버펄로, 시러큐스, 로체스터에 전기차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800만 달러 투자, 직류 고속 충전기 프로그램 1차 및 2차 라운드에 따라 업스테이트 뉴욕 접근성 증대를 위한 ChargePoint 및 EVGateway 보조금 700만 달러 지원,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 Program, NYTVIP)에 따른 스쿨버스 및 준버스 전기차 전환을 위한 800만 달러 자금 투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약 85% 줄이고 청정 에너지 투자 혜택의 최소 35%(40% 목표)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제공한다는 주정부의 국가 주도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를 지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공기 오염 완화는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 개선을 위해 중요할 분 아니라, 청정 교통 수단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욱 많은 전기 버스를 운영하고 소외된 지역에 고속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이 지속가능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평등과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욱 밝고 청정한 미래를 마련합니다."

Doreen M. Harri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마련하고 고속 충전기 설치가 미미한 지역에 최신 기술과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인 ChargePoint 및 EVGateway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기 버스 등 전기차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아이들이 청정 교통 수단을 일상적으로 통근, 통학, 기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류 고속 충전기(Direct Current Fast Charger, DCFC) 프로그램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 2년의 경험과 최소 10개 고속 충전기 또는 레벨2 충전기 200개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개발업체 및 설치업체로부터 제안을 수렴합니다. 이러한 제안 수렴을 통해, 2개 이상의 고속 충전소 설치를 고려하며 이러한 고속 충전소 최소 절반 이상은 소외된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각 충전소에는 반드시 최소 4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총 충전소 충전 역량은 600 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각충전소는 반드시 버펄로, 로체스터, 또는 시러큐스 도시 중심부 12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각 제안서는 반드시 최소 한 개의 충전소를 도시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NYSERDA는 프로그램 3차 라운드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EV 개발업체 및 설치업체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며, 평가 위원회는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제안서를 검토합니다.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레벨2 충전기 설치 또는 에너지원 분산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웨비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웨비나는 동부시간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에는 프로그램의 최초 2개 라운드를 통해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기타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고속 충전기 확대를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 **ChargePoint, 700만 달러** – ChargePoint는 1차 및 2차 라운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 웨스턴 뉴욕, 모호크 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REDC) 지역에서 각 네 곳의 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각 충전소는 EV 운전자를 위한 네 개의 DC 고속 충전 플러그를 설치해야 하며, 25%인 20곳 중 5곳은 소외된 지역사외에서 0.5 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EV Gateway, 750,000 달러** – EVGateway는 2차 라운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 지역 3곳에 고속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각 충전소는 EV 운전자를 위한 네 개의 DC 고속 충전 플러그와 레벨 2 플러그를 설치해야 하며, 66%인 3곳 중 2곳은 소외된 지역사외에서 1 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 Program, NYTVIP)에 따라 600만 달러를 신규 무배출 전기 버스 구매자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 200만 달러를 지역사회 내에서 운행하는 준 버스 전기차 구매자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 데포에 보관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 0.5 마일 이내의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인 경우, 추가 비용 상승분의 최대 100%를 프로그램이 보상합니다.

직류 고속 충전기 프로그램 및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집행하는 연방 폭스바겐 합의(Volkswagen Settlement) 자금 1억 2,770만 달러의 일환입니다. DCFC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또한 RGGI 경매에서 충당합니다. DCFC 프로그램은 전기 자동차를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80%를 제공하며, 전국 전기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NEVI 프로그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출가스를 감축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뉴욕주는 전기차 사용 확대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발전과 뉴욕 주민의 EV 편의성 확보, 청정 운송 수단을 통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이익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Justin E. Driscoll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임시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기차 인프라의 리더가 되어 운송 부문을 청정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Hochul 주지사가 주도하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외된 지역사회 등 업스테이트 도시의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기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보합니다. 뉴욕 전력청의 이볼브 뉴욕(EVolve NY) 고속 충전 네트워크는 전기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목표 달성을 위해 주정부 기관 다수와 협력하고 있는 교통부는 뉴욕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전기 충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오늘의 발표는 더욱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조성하기 위한 뉴욕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전기 스쿨 버스 및 준 버스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친환경 개혁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Hochul 주지사의 흔들림 없는 지원을 통해 뉴욕은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Tim Kenned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LCPA에 따른 대담한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전기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청정 에너지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배출 차량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NYSERDA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운송 부문 전기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인프라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기 전까지는 EV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운송 부문은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그리고 운송 부문 전기화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 준수를 위한 전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오늘의 투자로 뉴욕주는 업스테이트 전역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 인프라 불안 해결, 뉴욕 주민의 전기차 전환 독려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합의 기금을 활용해 더욱 많은 스쿨 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의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운송 부문 우선 전기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Pasquale Romano ChargePoint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야심찬 수준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전기차가 해결책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지역사회와 통행로, 특히 소외지역의 도로에서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내에서 전기차 충전을 확대하려는 Hochul 주지사와 NYSERDA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NYSERDA,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핑거 레이크스, 웨스턴 뉴욕, 모호크 밸리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ivina Anzures EVGateway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vGateway는 뉴욕주,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EV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서 NYSERDA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DC 고속 충전 도로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면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부문의 전기화에 대한 뉴욕주의 10억 달러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Hochul 주지사 주도로 주정부는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트럭을 배출가스 제로로 하고, 같은 해 모든 스쿨버스를 배출가스 제로로 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탄소 배출과 오염을 줄이면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더 깨끗한 공기와 더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집니다. EV Make Ready, EVolve NY, Drive Clean Rebate, 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NYTVIP) 프로그램, Charge NY 및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NEVI)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전기 차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뉴욕 시민의 청정 운송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무탄소 차량 850,000대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6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